

# 원·달러 ‘1444원→1410원’ 요동… 정치적 변동성 지속 전망

(계엄선포) (4일 15시 30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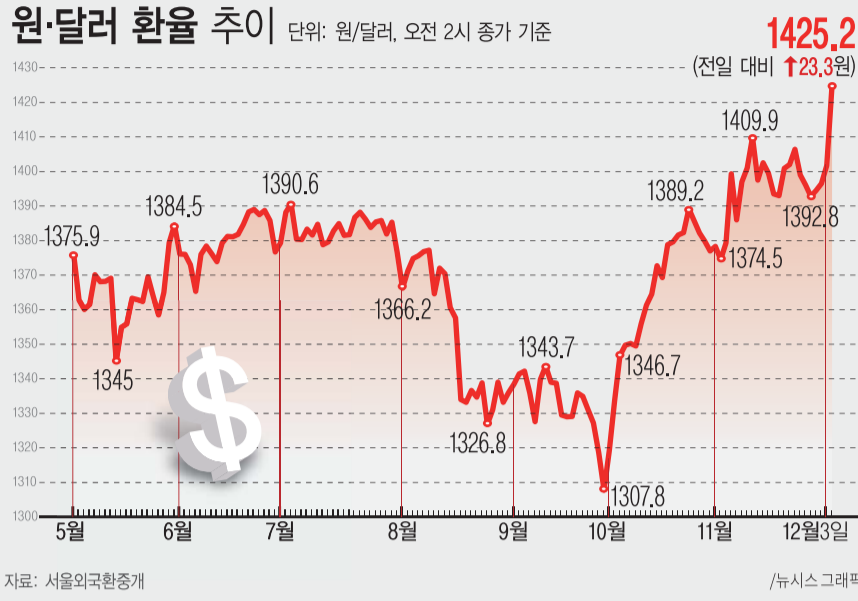
## 원화자산

달러, 엔 환율 최고수준 상승  
계엄 해제 후 전일 수준 회복  
정부 “유동성 공급에 힘쓸 것”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등 주요 환율이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했고, 원·엔 환율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 대비 6.50원(0.46%) 하락한 달러당 1410.10원에 오후 거래(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같은 날 원·엔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 대비 7.18원(0.75%) 하락한 100엔당 940.32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모두 완만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7.5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1원

(0.78%) 오른 수준으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장중 한 때 달러당 1444.70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

다. 달러가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같은 날 원·엔 환율도 전일보다 6.96원(0.74%) 오른 100엔당 947.50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계엄 선포에 원·엔 환율도 장중 970.74원까지 상승했지만,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하락했다. 엔화가 97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5월이 마지막이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밤 새비지 뉴욕멜론은행 시장전략책임자는 “계엄령 선포가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간극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는 한국의 정치인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게

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일부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과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체계를 상시화하고,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이탈 ‘뚜렷’ “정치리스크 수습 속도가 지수 좌우”

### 국내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  
“한 차레 레벨 다운 피하기 어려울 것”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하반기 들어 두드러진 외국인 투자자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계엄령 선포 여파를 소화하며 전 거래일보다 1.44% 하락한 2464.00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개장 당시 1.97% 급락한 상태로 시작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지만 점차 낙폭이 축소됐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 내린 677.59에 거래를 시작해 1.98% 떨어진 677.15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두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8.37%), SK하이닉스(1.88%)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떨어졌다. 이차전지주도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83%, 3.39%씩 하락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낙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코스피 약세 압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상위 세 번째인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각도 변할 수 있다”며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



4일 서울 중구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0.10)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0.80)보다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 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내며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에만 약 19조 원을 팔아치웠으며, 이날도 코스피에서 약 4100억원을 털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산의 매력도 약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한국의 대외 신뢰도 약화도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 대내외적 지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찬 iM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한 단계의 레벨 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매도 규모는 우려보다 크지 않다”며 “외국인 자금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는냐에 달려 있고, 수습이 되면 증시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투자자 몰리며 거래소 일시 마비 ‘역김치프리미엄’ 30분 34% 등락

### 가상화폐

비트코인 한때 8800만원선까지 하락  
빠르게 회복…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지만 4일 오전 1시계 계엄 해제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해프닝일 뿐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1시 한때 8826만60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계엄선포 이후 30분 만에 33.9%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팔기 시작했고, 점차 급락장으로 변하면서 패닉셀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가격이 30분 동안 30% 넘게 하락한 적은 전무하고, 하루 새 30% 하락한 적도 없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계엄령 선포 이후 35% 하락한 380만원까지 떨어졌고, 리플(52.4%), 솔라나(39.8%), 도지코인(45.4%), 월드코인(30%) 등도 폭락했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은 비상 계엄령 충격에 국내만 출렁였다.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역김치프리미엄’이 발생했고 한때 30% 넘게 벌어졌다.

통상 원화마켓의 가상자산 시세는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김치프리미엄(한국프리미엄)이 적용됐는데 대규모 매도세로 뒤바뀐 것이다.

계엄해제 발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제히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고, 글로벌 시장과 간극을 좁히면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 현재 ‘역김치프리미엄’은 0.5% 수준이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애플리케이션(안드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리온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드, iOS), Open API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입출금 요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USDT)을 입금해, 거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후유증으로 향후 가상자산시장의 침체기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의 가격은 2~3시간 만에 국제가격으로 빠르게 회복됐고, 급등락은 정치상황과 함께 단기적 ‘해프닝’이 됐다”며 “정치 상황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장기적 전망은 어렵지만 글로벌시세 발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